

# 오월길에서 다시 만난 민주주의



이돈삼 전남도청 사무관 '오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 출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작가 제공>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을 따라 걸으며 그날의 기억과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는 책이 나왔다. 남도 토박이이자 5·18 사적지 안내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돈삼 전남도청 사무관이 펴낸 '오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 (살림터)이다.

## 옛 전남도청 등 지역 사적지 60곳 소개 현장 기록·문학·사진으로 되살린 5월

책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시민들의 기억을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저자는 오랜 시간 남도의 길과 사람을 기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곳곳에 남아 있는 5·18 사적지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책은 길의 의미를 짚어보는 1장을 시작으로 광주 지역 사적지를 다룬 2·3장, 전남 지

역 현장을 담은 4·5장으로 이어진다. 1980년 5월 항쟁의 불씨가 시작된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상무관, 전일빌딩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당시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 희생의 흔적을 담아냈다. 특히 계엄군의 폭력과 시민들의 헌혈, 주먹밥 나눔, '해방광주' 공동체 경험 등 현장에 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역사를 보다 현실감 있게 체감하도록 구성했다.

5장 후반부 '사적지 표시석 디자인에 담긴 5월 상징'에서는 조각가 김광현이 5·18 사적

지 표시석을 만들게 된 배경과 그 안에 담긴 상징성을 소개한다. 이어 '5월 영령 추모하는 아름다운 이팝나무꽃'에서는 5·18민주묘지 가는 길의 이팝나무와 꽃이 오월 광주를 상징하게 된 이유를 들려준다.

부록 성격의 6장 '그날의 현장, 기억의 공간'에는 광주 사적지 30곳(33개 지점)과 목포·나주·화순·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장흥 등 전남 사적지 30곳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문학과 역사적 기억을 연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공간과 실제 사적지를 함께 설명하며 허구와 현실이 만나는 지점을 짚어낸다. 소설 속 '동호'의 시선을 따라가며 독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고통과 윤리적 질문까지 마주하도록 이끈다.

책에는 저자가 촬영했거나 관련 단체·유



족이 제공한 사진 240여장도 함께 실렸다. 총탄 자국이 남은 건물과 사적지 표시석, 민주묘지 풍경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각적 기록을 전한다.

저자는 "오월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에도 이어져야 할 가치"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 연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전남도청에서 근무 중인 이돈삼(사진) 사무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남도 여행과 지역 이야기를 써오고 있다. 현재 5·18 사적지 안내해설사(5·18기념재단)와 5·18 역사해설사(전남도)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남도 명랑의 기억을 걷다', '숨은 길 찾기' 등이 있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경배합니다=배재경 저자  
계간 문예지 '사이편'을 발행하는 시인 배재경의 신작 시집이 발간됐다. 시집에는 시인이 지난 10여년 동안 써온 시편들이 담겼다. 2022년 시집 '하늘에서 울다'가 사회적 소재를 중심으로 묶었다면 이번 시집은 보다 개인적인 내면과 삶의 기억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시집에는 고향 경주에 대한 기억과 유년 시절의 풍경, 불우했던 가족사, 일상 속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담담한 언어로 담겨 있다. 특정한 '고백시'를 의도하고 쓴 작품들은 아니지만, 시인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정서가 두드러진다. /사이편·1만2천원



▲백지 앞에서=최은영 저자  
소설가 최은영이 데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산문집을 출간했다. 책은 작가가 처음 털어놓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다시 혼자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착취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시절에 대한 기록부터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병원을 자주 오야야 했던 지난겨울의 이야기, 어린 시절에 형성돼 짧지 않은 시간 지속됐던 외모에 대한 강박, 동물권과 세월호 참사 등 사회문제를 아우르며 우리가 서로 연루돼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목소리까지. 한 명의 작가이자 개인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꺼내어 보인다. /문학동네·1만7천500원



▲오독의 발견=김민철 저자  
저자는 책이 품은 수만 갈래의 길 속에서 마음껏 길을 잃는 것을 허용하고, '나'를 통과한 독자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이 오독의 세계에서 책을 덮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읽고 읽고 또 읽으며, 문장과 단어를 '오독오독' 씹어서 소화하는 것이 여러 권을 읽어 성적표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바는 간단하다. 책 속에서 마음껏 걸어보고, 느껴보고, 머물러보고, 음미해보고, 길을 잃어도 볼 것. 책 앞에서 필요한 단 하나의 준비물은 스스로에게 오독을 허용하는 다정한 태도다. /김영사·1만8천800원



▲구멍청=백희나 글·그림  
보름달 뜬 밤, 흔들리는 노란 불빛. 제대로 된 요리를 완성했을 때에만 문을 여는 달토끼 식당. 어느 날, 달토끼들은 깊은 산속에서 자연산 구멍을 발견하고, 여드레 밤 동안 구멍청을 완성한다. 첫 손님을 기다리던 늦은 밤, 몸집 작은 곰돌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 마음속 깊은 구멍을 정성껏 달여 만든 달토끼 식당의 특별한 한 그릇, 백희나 신작 '구멍청'은 지친 존재에게 거창한 해결책 대신, 다정한 작은 해소를 건넨다. 당신의 구멍은 무엇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달토끼들이 정성껏 차려낸 구멍청 한 그릇 앞에 앉아 보자. /스토리보울·1만7천원

# 혐오의 언어가 된 '나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다

## 정희옥 명지대 교수 '나이 묻는 사회' 출간



뜯박춤, 연금춤, 개저씨, 김여사, 급식춤, 초콜링... 한국사회는 나이 멸칭 문화에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년, 중년, 청년,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전 연령과 세대를 지칭하는 나이 멸칭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조롱과 경멸을 주고받는다. 여러 연령대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인 저수자인 아동과 노인에게 쉽게 비하와

경멸의 화살이 향한다. 이는 우리가 지독한 '연령차별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증거다. 나이가 많아서, 적어서, 같아서 혐오하는 '나이 전쟁'의 실체를 탐구하는 책이 발간됐다.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펴낸 '나이 묻는 사회' (한겨레출판사)이다. 나이는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쉽고 유용한 기준이다. 그래서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데 흔히 사용되지만 때로 해악, 불이익, 부당함을 초래하고 세대 간 결속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즉 상대의 나이가 '많아서, 적어서, 혹은

같아서'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행위가 '연령차별주의'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사회가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판단해 기회와 자원을 배제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정 연령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불리한 법 제도와, 시스템, 규정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연령차별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달리 피해 당사자들이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나이는 누구나 먹는 것'이라는 평등의 논리에 가려져 그 위험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이는 모두를 차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쩌다 연

령차별주의 사회가 됐으며, '나이 전쟁'을 중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종·국적·지역·성별·장애·빈부·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혐오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저자는 이번에 '나이'로 화두를 넓혔다. 이 책은 세대별 나이 멸칭의 종류와 유래, 의미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정치, 사회, 대중문화, 일상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연령차별주의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국형 연령차별주의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관계를 규정해온 '나이'라는 오래된 문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인간관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http://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b>시내 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국 222-8171</li> <li>· 산수지국 224-4188</li> <li>· 학운지국 673-6836</li> <li>· 화정지국 372-9140</li> <li>· 금호지국 376-7153</li> <li>· 풍암지국 603-0311</li> <li>· 노대지국 674-3581</li> </ul>	<p><b>지방 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지사 061)270-8689</li> <li>· 동목포지사 061)278-0740</li> <li>· 남목포지사 061)245-3797</li> <li>· 신안지사 061)980-8300</li> <li>· 순천지사 061)746-1600</li> <li>· 여수지사 061)651-6433</li> <li>· 상무지국 453-2554</li> <li>· 광천지국 374-2120</li> <li>· 진월지국 676-2726</li> <li>· 봉선지국 673-6836</li> <li>· 백운지국 673-0123</li> <li>· 두암지국 266-1920</li> <li>· 농성지국 362-4102</li> <li>· 유동지국 222-8171</li> <li>· 운암지국 529-3548</li> <li>· 용봉지국 261-1503</li> <li>· 신가지국 954-1420</li> <li>· 양산지국 574-3745</li> <li>· 하남지국 951-9954</li> <li>· 운남지국 952-1687</li> <li>· 오치지국 261-9461</li> <li>· 문흥지국 261-9462</li> <li>· 일곡지국 573-3200</li> <li>· 첨단지국 971-7374</li> <li>· 치명지국 371-9584</li> <li>· 수완지국 955-0451</li> <li>· 광신지사 944-0993</li> <li>· 무안지사 061)453-3645</li> <li>· 할평지사 061)322-0882</li> <li>· 영광지사 061)353-5133</li> <li>· 장성지사 061)394-3636</li> <li>· 완도지사 061)555-0134</li> <li>· 진도지사 061)542-4330</li> </ul>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